

開會辭

通信政策研究所 所長
洪炳裕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정보통신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통신정책연구소와 일본의 전기통신총합연구소간의 연구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한·일 정보화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회장으로서 개최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신 국내외 학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전문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세계각국은 통신·전자 분야의 혁명적이라 할만큼 엄청난 발전에 힘입어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응용이 가져오는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선진국에서 이미 실증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의 발전은 경제 및 사회의 제반부문에 걸쳐 더욱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의 역할은 물질이나 에너지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새로운 자원으로서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이라는 논의가 점차 공감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또한 통신부문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그리고 경제사회적 기반구조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정보화의 실체를 해명하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선진국의 경우에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에서는 정보·통신 정책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영역으로서 국가정책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산업사회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아울러 정보화의 제 파급 효과를 수용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실정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급속한 변화추세와 그것

이 우리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할 때, 산업화와 정보화는 더이상 별개의 과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국가발전 목표에 차질없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제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보화로 향한 시대적 물결은 필연적으로 국제경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기존질서의 개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인 정보화에서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보호주의 물결, 자원의 무기화,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정보화의 새 물결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들에게 여가시간을 증대시켜 왔고, 물질적 욕구보다는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여 다양한 문화의 여가활동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소비형태 또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 고령화, 고학력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고밀도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으로 행정, 교육, 의료, 보건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정보화는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국가발전은 크게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 및 사회의 정보화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생산·가공·유통·저장하는 기기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은 그 자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산업부문에서 신제품 개발까지 고도기술 집약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 소득증대와 연구개발에 의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제품의 다양화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장벽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정보화는, 자동화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관리시스템의 효율화와 생산시간의 단축으로 원가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제어장치의 보급 및 소

형화, 그리고 다기능화된 공장자동화로 품질향상을 기하며, 신속한 정보 유통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볼때, 산업의 정보화는 기업활동을 효율화 시킴으로써 생산, 유통, 판매 등 기업경영의 각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에너지 절약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산업의 정보화는 이러한 요구에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정보화는 정보획득 비용의 감소와 정보통신에 의한 교통과 수송의 대체로 공간적 제약을 크게 완화하여,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국민생활측면에서 볼 때 가정생활, 보건생활, 직장생활, 교육, 행정, 교통등의 여러 부문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의 성격과 역할을 고찰하고, 올바른 정보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점에 있어서“정보통신과 국가발전”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 학술대회는 정보통신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통한 경제·사회의 정보화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익한 고견을 많이 들려주실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신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한·일 정보화사회 학술대회를 빛내주신 초청연사 여러분과 이 대회를 이처럼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여러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알찬 결실을 얻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